

20190407 주일 말씀 녹취록

제목 : 복음의 의식을 가진 사람

말씀 : 강만석 목사님

본문 : 베드로후서 3:8-13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생각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 세계까지 탐구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세계 보다 숨겨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더 무궁무진하다고 말합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하면 연구 할수록 더 대단한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말할 때 어느 나라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땅은 얼마나 큰가? 또 국민 의식은 어떤 것인가? 국민성은 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뭐냐?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지만 함부로 살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함께 사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거센 물결을 거슬러 와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알을 낳고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물고기라 할지라도 종족보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적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능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뭔가 모르게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식입니다.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의식을 창세기 3장 사탄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흑암에서 해방되었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복음 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역사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 곳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 하셨습니다 우리 DNA가 우리 DNA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나를 세계 복음화 역사의장으로 이끌 때 우리는 서슴없이 따라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History)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라는 말은 He's Story 그분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예일 대학 교수인 펠리칸이 쓴 책에 “예수의 역사의식 - 200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요약해 보면 세계 역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어느 나라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세계 역사가 바뀌지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대했는가? 받아 들였는가? 거절했는가? 아니면 대항했는가? 예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가 결정되고 번영과 행복이 예수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고 그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을까요? 그 핵심은 딱 한가지 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파문을 일으킨 한상렬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때 정부의 허가도 없이 평양 칠곡 교회에 가서 기도문을 낭독 했는데 그것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멸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의 기도문에 나오는 문구를 소개해 보면 그 당시 한국의 대통령 이명박 괴뢰도당 이라고, 극악 무도한 미국과 한 통속이 되어 천안함을 침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뒤집어 씌운 이게 파문을 일으킨 기도문 입니다. 공산국가에 가서 대한민국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런 기도문을 낭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권오석 동지, 사위 노무현 권양숙 여사는 인민의 영웅이라고까지 치켜세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 무신론에 땅에 가서 인간을 우상화하는 나라를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저는 하였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그분은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있는 사람인가? 무신론에 주장하는 독재자로 찬양하는 것보다 목사인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의구심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진보연대 상임고문이라고 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헛갈리는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기도문을 낭독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식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흔들린다면 교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를 때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 아무개 이 아무개 등으로 이름과 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름은 가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성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대로 족보로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족보입니다. 그리스도 영원한 변함없는 족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혼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을 한 목사인데 이렇게 무신론을 찬양하는 일도 참으로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두가 다 흔들립니다. 결국은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자가 아니라고까지 단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로 정리된 우리 정체성이 바른가? 흔들리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북한을 찬양하는 20대 젊은 사람들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식도 그리스도의 종말의식, 관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종말의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산국가 사회주의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 할 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베드로후서 서신을 받을 때 성도들이 당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하나, 하나 주위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예수님이 재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조바심을 가졌을 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계산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시간만을 말하는데 어거스틴은 시간을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인 시간이 오묘하게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피천득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수필가인데 이분이 자신의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옛날에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 중국 여학생을 사랑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국 여자와 결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했는데 결혼을 못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중국 여학생의 사진을 수첩에다가 70년을 넘게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피천득 씨는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여자는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에게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객관적인 시간을 말하지만 어떤 때는 30년 40년 70년이 지나도 어제 같이 시간이 정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대로 우리는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음의 사람들 사탄의 손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복음의 자유와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녀들은 서로 만나기로 약속 할 때 약속 시간에 오지 않을 때 조금 있으면 오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요즘은 핸드폰 있어서 어디냐고 묻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 줍니다 30분도 기다려 주고 1시간도 기다려 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직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증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재림 할 때 지진이 많이 날 것이라고 근데 왜 일인지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진 없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백두산도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서 폭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로 모여서 곧 오실 재림을 대비하다가 재림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 그 때 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씀이십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 그 때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해방을 왜 독립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 기대가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30년이 지났는데 1940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독립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물리치고 태국도 베트남도 점령하고 남태평양을 다 점령하는 것을 보면서 독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1940년 이후에 친일파로 돌아서 권력과 돈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친일파들이 출세 한 것입니다.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이 영원히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일부 사람들 정체성이 흔들리고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면서 일본 황제가 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일본이 끝나게 됩니다 해방이 온 것입니다 해방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이 갑자기 해방이 오니까 감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당시 이름만 말해도 아는 유명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 온다 해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 그 분은 반드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친일파인 그 후손들도 지금까지 부끄러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방이 되듯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오게 됩니다

본문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한 말 가운데 창세기 1장과 베드로서 3장을 보면 진짜 이거는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도 다 도청이 된다고 합니다 CCTV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갔는지도 다 찍힙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흑암의 자녀에서 완전 해방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최고의 명 설교가를 뽑으라고 한다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의 대표적인 설교가 “목숨이 살아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남을 깎아 내리지 말고 말을 할 때도 양가품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부끄러움으로 남을 해 하게 하지 말라.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분명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일이 더 많은지 살아갈 일이 더 많은지 분명히 여러분은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영적 비밀 누리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앞으로 남은 삶이 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음의 사람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분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며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전파 운동의 복음의 역사의식,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의 의식은 가지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영적 힘을 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 전에 나와 예배 승리 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 저곳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램턴트들 하나님 기억 하시고 그들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